

“운전자는 몰라요”... 벤츠, 4개 차종 ‘조용한 리콜’

10일부터 시정조치 실시
소극적인 리콜 자세 ‘지적’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아직



벤츠 AMG C43 4MATIC 쿠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최근 4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차종은 AMG C43 4MATIC 쿠페 등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AMG C43 4MATIC 쿠페를 포함한 4개 차종의 리콜을 진행 중이다.

AMG C43 4MATIC 쿠페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2018년 3월부터 생산된 차종

에 한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 운행 시 배기 장치의 온도로 플라스틱 재질의 하부 패널이 접착돼 불이 날 수 있다는 이

유에서다. 특히 최근 BMW 520d 차량이 배기가스 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만큼 AMG C43 4MATIC 쿠페

페도 비슷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C220d 쿠페는 스티어링 칼럼 스위치 모듈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시정을 위해서는 스티어링 칼럼 스위치 모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지난 2017년에 생산된 AMG S63 4MATIC 쿠페와 AMG S63 4MATIC 카브리올레 두 개 차종은 주행 시 ES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의 의도대로 차량이 주행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5대가 리콜됐다. 시정하려면 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리콜 수리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을 탑재한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을 미루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차량 충격으로 에어백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금속 파편 등이 튀어나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리콜이 진행 중인 4개 차종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co.kr)

개소세 혜택 車 벌써 완판?... “재고없어 5개월 기다려야”

리포 벤츠 전시장 가보니

혜택 받으러 찾은 방문객으로 북적
재고 부족인데 프로모션 미끼로
‘고객 묶어두기 아니냐’ 지적도



벤츠 전시장에 찾은 손님들의 모습.

“현재 프로모션을 적용한 차종들은 전부 완판됐다.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에서 기자가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정부의 개별소비세 이후 차량 판매가 어떻게 되고 문자 해당 대리점에서는 개소세 혜택 모델이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해당 차량의 재고가 부족한데도 ‘8월 프로

모션’을 발표해 고객 묶어 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리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난 글이 확인된 셈이다.

A씨에 따르면 이번 개소세 관련 프로모션에 적용된 차종들은 모두 2018년형이지만 현재 대리점에는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독일에서 들여오는 차량 공급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5개월 가량은 지나야 프로모션 대상 차량이 한국에 들어온다.

이에따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는 수요 예측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차량 확보에는 실패했다. 벤츠 본사에서는

한국 시장을 중요하지 않게 판단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2% 성장한 6만8861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연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던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일본을 크게 앞섰다”며 “올해 한국의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고 경제도 성장세가 지속돼 7만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이날 전시장 안에는 대부분 프로모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족단위 고객들이 붐볐다. 방문객 중 다수가 처음에는 구입을 염두에 두고 전시장에 방문했지만

프로모션이 적용된 차종이 없다는 직원의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전시장을 방문한 B씨는 “최대한 할인을 받고 싶어 전시장을 찾았는데 재고가 없다니 너무 아쉽다”며 “차를 사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구입 시기를 미뤄야 할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시장 안에는 최근 화재가 되고 있는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 묻는 고객도 있었다. 대리점 직원 C씨는 “벤츠 S63 AMG 모델만 문제가 되고 있지 다른 차종은 괜찮다”고 말했다. S63 AMG 차종은 지난 2015년 주행 중 시동 꺼짐이 원인이었던 일명 ‘골프채 사건’으로 721대가 리콜된 모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물량 수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국제 표준 배출가스(WLTP) 인증절차가 변경되는 것도 재고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현대차·롯데·대한항공 라오스 구호 적극 나서는 국내 기업

구호물품·성금 등 지원 앞장

국내 기업들이 지난달 말 해외건설 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주목받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롯데그룹, 대한항공 등이 라오스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인도적 지원을 이어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라오스에 구호 의사를 밝힌 곳은 대한항공과 부영그룹이다.

대한항공은 사고가 알려진 직후인 27일 라오스 이재민에게 생수, 담요 등 긴급 구호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한 KE461편 여객기에 제주푸어워터 생수 3만6000L(1.5L짜리 2만4000병), 담요 2000장 등 약 40톤 규모의 구호품을 실어 보냈다.

부영그룹도 지난 2일 라오스 노동복지부 국가재난예방관리위원회를 찾아 구호성금 10만 달러(1억1000여만원)를 기탁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9년 라오스 비엔티안에 주택금융이 주업인 부영라오은행을 설립해 운영 중이라 라오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도 지난달 댐 붕괴 사고로 발생한

라오스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활동을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라오스 지부가 있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을 통해 현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을 재건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방치되기 쉬운 아이들을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립하는 등 피해 지역 아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현대차그룹도 라오스 댐 사고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룹 계열사별 지원 금액은 현대차 1억1000만원, 기아차 1억1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1억3000만원이다. 지원금은 라오스 정부와 각 구호단체로 전달돼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본 라오스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칠레 대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역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T ‘로밍ON’ 印尼로 확대 10분 통화료 1188원

KT가 해외에서 음성통화 요금을 국내와 똑같이 1초당 1.98원을 적용하는 ‘로밍ON’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로밍ON 서비스가 적용되면 음성통화 요금이 최대 97% 낮아진다. 기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음성통화할 경우 1분에 3571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로밍ON 적용에 따라 1분에 119원, 10분에 1188원만 부담하면 된다. 로밍ON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KT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인도네시아가 로밍ON 서비스 국가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게임 기간(8월 18일~9월 2일) 원정 응원을 떠나는 KT고객의 통화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휴양지로 많이 방문하는 발리에서도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다. 이로써 KT 로밍ON 적용 국가는 총 13개가 됐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유플러스 ‘대학생 감성서포터즈 3기’ 모집

LG유플러스는 5G, 사회공헌 활동 등을 주제로 자율 취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스팅을 통해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대학생 대외활동 ‘유플러스 대학생 감성서포터즈’ 3기 모집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플러스 대학생 감성서포터즈(이하

‘유대감’)는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 및 고객감동 활동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달 2일 자정까지 유대감 공식 네이버 포스트 내 유대감 3기 모집 게시글을 참고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민기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민기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